

澄觀의 五臺山 信仰

慧南(盧在性)

譯經學科 教授

本 論文은 拙論 「澄觀의 五臺山 入山과 『華嚴經疏鈔』의 著作」 (본고 『論文集』 제7집, 1998年, 중앙승가대학교, p.47~64)과 密接한 關係를 갖는다. 즉 지난 號에서는 澄觀이 『華嚴經』의 諸菩薩住處品의 經文을 보고 發心하여 五臺山으로 들어가서 17년 간이나 山 속에 묻혀 懺悔와 祈禱 속에서 『華嚴經疏』를 짓고 많은 講師의 要請에 의하여 다시 『演義鈔』를 짓게 되는 過程을 살펴보았다. 이번 號에서는 澄觀의 五臺山 信仰의 本質을 그가 「諸菩薩住處品」을 註釋한 『華嚴經疏』와 그것을 다시 자세하게 說明한 『演義鈔』에 依據하여 考察하고, 그것이 後代에 미친 影響과 澄觀이 住錫하였던 大華嚴寺 즉 오늘의 大顯通寺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澄觀의 五臺山 信仰

慧南(盧在性)
譯經學科 教授

- | | |
|------------------------|------------------|
| 1. 序言 | 6. 五臺山 參拜를 勸함 |
| 2. 澄觀이 말하는 經典上의 五臺山 信仰 | 7. 唐末 五代의 五臺山 信仰 |
| 3. 聖靈이 머문 곳 | 8. 大顯通寺 |
| 4. 五臺山의 聖跡 | 9. 맺는 말 |
| 5. 皇室의 歸依와 外國僧의 參拜 | |

1. 序言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五臺山 信仰의 淵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新羅의 善德女王 仁平三年 즉 唐의 貞觀 十年(636)에 慈藏 律師가 僧實 등 十餘 名의 弟子를 거느리고 中國 淸涼山에 가서 帝釋天이 工人을 거느리고 내려와서 조각하였다는 文殊菩薩의 塑像에게 冥感이 있도록 祈禱하고 꿈에 菩薩像이 이마를 만지며 梵偈를 주는 靈驗을 얻었다. 꿈에서 깨어나 뜻을 알 수 없었는데 아침이 되자 異僧이 와서 解釋하기를 ‘一切의 法이 自性이 없는 줄 알아라. 이와 같이 法性을 알면 곧 盧舍那를 보리라. (了知一切法 自性無所有 如是解法性 卽見盧舍那)’¹⁾라고 해석하여 주면서 “비록 萬 가지의 가르침을 배우더라도 이 글보다 수승한 것은 없다.”고 하면서 부처님의 가사 발우와 舍利 一百顆, 貝葉經등을 주면서 “너희 나라 靈鷲山 밑에 毒龍이 사는 연못이 있다. 그곳에 金剛戒壇을 쌓고 이것을 奉安하라. 부처님의 舍利가 오래 머물면 天龍이 그것을 擁護할

1) 『華嚴經』 卷第十六 須彌頂上偈讚品 第十四 (大正藏10. 82 上)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慈藏이 배를 타고 西海로 돌아오는데 龍王이 禮拜하고 말하기를 “本國의 黃龍寺 護法龍은 저의 아들입니다. 나라 남쪽의 江岸에 절을 세우고 탑을 奉安하면 저와 東海 龍王 이하루에 세 번 가서 돌고 법을 듣고 부처님을 擁護하겠습니다.” 하였다.

法師가 돌아와서 왕에게 아뢰니 王은 法師를 國統으로 삼아 黃龍寺를 세우고, 탑을 세워 부처님을 奉安하였다. 다음에 法師는 月精, 太和, 大菴寺를 세우고 鷲栖山 밑 毒龍이 사는 연못에서 說法하여 調伏 받고 연못을 메우고 壇을 쌓아 舍利와 가사를 奉安하고 이름하여 通度寺라 하니 곧 佛²⁾의 宗家이다.³⁾

위의 說話는 中國 五臺山 信仰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 中國의 五臺山 信仰에 비견할 우리 나라의 五臺山 信仰의 産物이 江原道 평창군 진부면에 있는 中臺의 寂滅寶宮을 비롯하여 五臺에 各各 佛菩薩이 많은 弟子들을 거느리고 說法하고 계신다는 五臺山 信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日本에서도 12世紀 中葉에 成立된 『奧義抄』에는 “李部王의 記에 ‘吉野山은 五臺山の 한쪽 끝의 구름을 타고 날아 왔다.’는 內容이 보인다.”고 하였고, 『和歌童蒙抄』에는 “金峯山은 五臺山の 조각이 五色의 구름을 타고 왔다’고 李部王記에 쓰여 있다.”라고 주석하고 있다. 즉 吉野山과 金峯山은 中國의 五臺山에서 날아온 것⁴⁾이라고 말함으로써, 吉野山 信仰과 金峯山 信仰의 근원이 中國의 五臺山 信仰에 淵源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五臺山 信仰이란 어떠한 것일까?

中國의 五臺山은 唐나라 때에는 代州 雁門郡에 속하였으며, 지금은 山西省 忻縣區 五臺縣 東北에 있는 靈山을 말한다. 이 五臺山은 예로부터 靈地로 알려져 中國에서는 佛教

2) 韓國佛教全書 收錄本の 底本인 國立圖書館 所藏 筆寫本에는 ‘僧’字로 기록되었으나 東國大學校 所藏 謄寫本에는 ‘佛’로 기록되었다. 通度寺는 佛之宗家이므로 東國大學校 所藏 謄寫本이 바른 기록이다.

3) 『三國遺事』 卷四. 慈藏定律 (大正藏49. 1005 上~中) 및 梵海 『東師列傳』 卷一 (韓國佛教全書10. 997 上~中) 참조. 단 慈藏定律에서는 자장이 異僧에게서 袈裟와 舍利를 부촉 받은 사실을 기록한 다음에 그것의 脚注에는 ‘藏公이 처음에 숨겼기 때문에 唐僧傳에서는 신지 않았다.(藏公初匿之故唐僧傳不載)’라고 밝혀 『續高僧傳』이 慈藏律師가 文殊菩薩로부터 이마를 어루만지며 梵偈를 수여 받은 摩頂授梵偈와 袈裟와 舍利를 부촉한 사실을 기록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는 梵偈의 내용이 新譯 『華嚴經』의 須彌頂上 偈讚品인 것과 함께 고찰하여 볼 때 新譯經이 번역된 이후에 설립된 설화임이 분명하다.

4) 山本謙治, 1987年 6月, 「唐土の吉野の山-金峯山飛來傳承と五臺山信仰-」 (近畿日本鐵道株式會社 『近畿文化』 451號 p.7)

系뿐만 아니라 神仙이 산다는 道敎系의 名山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산은 옛날부터 文殊菩薩이 居住한다는 靈地로서 普賢菩薩의 峨眉山 觀世音菩薩의 補陀 洛迦山과 함께 중국의 三大 靈山 혹은 地藏菩薩의 九華山을 포함한 四大 靈山의 하나로 알려진 聖地이다. 이 五臺山에는 ‘台中三百寺’라고 말하여지듯이 가는 곳마다 절이 있다. 이 산은 五臺山脈의 主峰이고 산꼭대기에는 五峯이 솟아 있는데 그 모습이 臺(臺)와 같기 때문에 五臺라는 이름이 생겼다고 한다. 五臺란 東臺(望海峰 2,795m), 西臺(桂月峰 2,773m), 南臺(錦綉峰 2,485m), 北臺(葉斗峰 3,058m), 中臺(翠岩峰 2,894m)를 말한다. 最高峰인 北臺는 높이가 3058m나 되며, 總面積은 4천 평방km에 미치고 여름에도 더위를 모르기 때문에 淸涼山이라고도 한다.

현재 五臺山에는 티벳불교 즉 라마교의 사원이 대부분으로 이 라마교의 사원을 黃廟라 하고, 여기에 반하여 전통적인 중국불교를 靑廟라 한다. 즉 이 五臺山 信仰에는 각각 각색의 중층적인 신앙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賴富本宏 「五臺山の文殊信仰」⁵⁾은 五臺山の 文殊信仰을 三段階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다.

1. 初期段階로서 『維摩經』의 問疾品에 보이는 維摩와 對論하는 文殊 혹은 釋迦 三尊系의 文殊 등으로서 이른바 전통적인 顯敎系의 文殊信仰을 말한다.

2. 第二段階는 中期的 段階라고 假稱할 수 있으며 새로운 展開을 이룬다. 그 가운데서도 第一은 五字 文殊, 金剛利 文殊, 千臂千鉢 文殊의 密敎界 文殊의 성립이다. 第二는 『佛頂尊勝陀羅尼』의 信仰과 결합한 五臺山 文殊信仰이다. 이것이 가장 狹義의 五臺山 文殊信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3. 最終段階로서 등장하는 것은 元代 以後의 티벳系 佛敎, 俗稱 라마敎 계통의 文殊信仰과 美術로서 현재 實例의 半數 이상은 이 範疇에 속한다.

본론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五臺山 信仰은 이 전통적인 顯敎系의 文殊信仰을 말한다. 이 전통적인 五臺山 信仰 연구 방법에는 文獻 資料를 통한 연구방법과 現物遺品 資料⁶⁾

5) 賴富本宏, 1986年 3月, 「五臺山の文殊信仰」, 『密敎學研究』 18號, pp.93~112)

6) 賴富本宏의 위의 책은 五臺山の 文殊信仰에 관한 자료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a. 文獻 資料

1. 經軌 關係

- ① 『華嚴經』 (『六十華嚴』 등)
- ② 『文殊師利法寶藏陀羅尼經』 一卷 (唐 菩提流志 譯)
- ③ 『佛說文殊師利般涅槃經』 一卷 (西晉 攝道眞 譯)
- ④ 『五字陀羅尼頌』 一卷 (唐 不空 譯)
- ⑤ 『金剛頂超勝三界經說文殊五字眞言勝相』 一卷 (唐 不空 譯)

- ⑥ 『大乘瑜伽金剛性海曼殊室利千臂千鉢大教王經』十卷(唐 不空 譯)
- ⑦ 『文殊所說最勝名義經』二卷(宋 金總持等 譯)
- ⑧ 『大方廣菩薩藏文殊師利根本儀軌經』二十卷(宋 天息災 譯)
- ⑨ 『大聖文殊師利菩薩佛刹功德莊嚴經』三卷(唐 不空 譯)

ㄷ. 歷史 關係

- ① 『古清涼傳』二卷(唐 慧祥 撰)
- ② 『廣清涼傳』三卷(宋 延一 撰)
- ③ 『續清涼傳』二卷(宋 張商英 述)
- ④ 『清涼山志』十卷(明 鎮澄 譯)
- ⑤ 『山西通志』 특히 卷二十六, 同百七十一(清 王軒等 撰)
- ⑥ 『入唐求法巡禮行記』四卷(日本 圓仁 撰)
- ⑦ 『參天台五臺山記』八卷(日本 成尋 撰)
- ⑧ 『入唐五家傳』一卷
- ⑨ 『代宗朝贈司空大弁正廣智三藏和尚表制集』六卷(唐 圓照 撰)

ㄸ. 美術史 關係

- ① 『歷代名畫記』 특히 卷上(唐 張彥遠 撰)
- ② 『阿婆縛抄』 특히 九十九卷(日本 承澄 撰)

b. 現物遺品 資料

ㄱ. 現地(五臺山)遺存資料

- ① 佛光寺文殊殿藏白大理石文殊像(唐代)
- ② 佛光寺東殿藏塑造文殊像(唐代)
- ③ 南禪寺大殿藏塑造文殊像(唐代)
- ④ 佛光寺文殊殿藏塑造文殊像(金代)
- ⑤ 顯通寺千鉢殿藏千臂千鉢文殊像(明代)
- ⑥ 顯通寺東殿藏文殊像(明代)
- ⑦ 菩薩頂真容院藏石造文殊像(不明)
- ⑧ 太平興國寺藏文殊三尊像文殊像(現代)
- ⑨ 觀音洞藏文殊像(明代)
- ⑩ 望海寺藏文殊像(現代)

ㄴ. 流出 혹은 關聯 遺品資料

- ① 敦煌木版畫文殊三尊像(五代)
- ② 丕然傳來釋迦像胎內木版畫文殊三尊像(北宋代)

를 통한 연구방법이 있으나, 소론에서는 전자의 일부 즉 文獻 資料에 의한 釋迦 三尊系라고 할 수 있는 華嚴 三聖의 한 분인 문수보살에 대해서만 논하기로 한다.

五臺山의 역사는 거의 확실한 기록에 의하면 西晉이 통치하던 四世紀의 初期까지 遡及할 수 있다. 이 五臺山에 대하여 잘 알려진 대표적인 基本 史料는 『古清涼傳』, 『廣清涼傳』, 『續清涼傳』의 清涼 三傳과 日本 僧侶인 圓仁의 『入唐求法巡禮行記』가 있다. 『古清涼傳』은 唐朝藍谷 沙門 慧祥이 高宗 乾封 二年(667)에 스리랑카 승려인 釋迦蜜多羅와 함께 五臺山을 巡禮하고, 二年間의 山中 生活를 마치고 下山한 다음에 지은 것으로서 처음에는 『清涼山傳』이라고 불렀다. 『古清涼傳』은 『宋史』 205, 藝文傳에 ‘僧慧祥 古清涼傳二卷’이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현재 大正藏 第五十一卷(p.1092~p.1100)에 수록되어 있다. 文中의 最後 연대는 調露 元年(679)이므로 이때쯤 성립된 것으로 思料된다. 『廣清涼傳』은 宋代 五臺山 眞容院 妙濟大師 延一의 著書로서 嘉祐 五年(1060)의 序文이 있으며 大正藏 第五十一卷(p.1101~p.1127)에 수록되어 있다. 『續清涼傳』은 유명한 張商英 居士가 元祐丁卯(1087) 二月에 開封府推官으로 있을 때 꿈 속에서 五臺山 金剛窟을 구경하고 뒷날(五月) 河東提點刑獄公事를 除授받아 十一月에 金剛窟에 가서 옛날 꿈속에서 본 것과 다름이 없음을 徵驗하고 이듬해 六月 二十七日 五臺山에 가서 聖地를 두루 돌면서 갖가지 상서로운 체험을 쌓은 다음 자신이 본 聖境의 殊勝함을 記述한 것이다. 현재 大正藏 第五十一卷 (p.1127~p.1135)에 수록되어 있다. 이밖에 위의 三本을 集大成하였다고 볼 수 있는 明의 鎮澄이 지은 『清涼山志』 八卷이 있다.⁷⁾

- ③ 居庸關天王像鎧胸板文殊五尊像 (元代)
- ④ 醍醐寺藏諸文殊像中五臺山文殊圖 (鎌倉時代)
- ⑤ 西大寺藏渡海文殊五尊像 (鎌倉時代)
- ⑥ 高野山遍明院藏龕佛文殊五尊像 (鎌倉時代)

즉 크게 나누어 a. 文獻 資料와 b. 現物遺品 資料로 나눌 수 있으며, a의 文獻 資料는 내용에 따라서 文殊 관계의 經典과 儀軌에 관한 문헌, 五臺山에 대해서 설하는 역사 문헌 및 日本 佛教者의 五臺山 巡禮記를 합한 歷史 文獻 그리고 文殊菩薩 특히 五臺山 文殊菩薩과 관계되는 美術史 문헌의 三種이 있다. 이 가운데 文殊菩薩에 대하여 言及한 經典과 儀軌만 하여도 顯教와 密教를 합치면 60여 種 이상이나 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 7) 오대산 신앙이 唐代에 크게 일어난 것은 『화엄경』의 번역과 화엄종의 번창에 의한 것이지만 敦煌의 페리오 제117골에는 五臺山굴이라고도 불리는 唐代의 신비한 오대산 신앙과 그 성황을 보이는 壁畫가 그려져 있다. 이것은 대략 大曆(766~779) 혹은 貞元(785~804) 이후의 작품으로 추려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는 五臺山의 文殊信仰을 선양한 澄觀과 不空(705~774), 法照(생물 연대 미상), 無着, 智顓 등이 크게 활동한 시기에 해당한다. 오대산 신앙은 이 시기에 不空에 의해서 크게 선양되었으며 범조는 오

그러나 『古清涼傳』을 제외하면 五臺山에 대한 위의 저서들보다도 훨씬 먼저 성립된 것이 澄觀의 『華嚴經疏鈔』이다. 이것은 五臺山 신앙을 이해하는데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다.

또 五臺山 신앙이 中國 佛敎系뿐만 아니라 아시아 불교계의 성지로서 한국이나 일본 등 주변 국가에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澄觀의 『華嚴經疏鈔』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澄觀은 『華嚴經』에 기록되어 있는 文殊菩薩이 상주한다는 땅 清涼山이 바로 이 산이라고 믿고 거기에 많은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澄觀 스스로 이 산에서 杜門不出하며 수행에 전념하면서 그의 대표적인 저서인 『華嚴經疏』와 그것을 다시 해석한 『演義鈔』를 저술하였다. 小論은 이러한 澄觀의 五臺山 신앙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2. 澄觀이 말하는 經典上的 五臺山 信仰

澄觀에게 五臺山 신앙을 일으키게 한 『華嚴經』의 원문은 구역 『華嚴經』 30의,

東北方에 보살의 住處가 있으니 이름이 清涼山이다. 過去의 모든 보살이 항상 거기에 거주하였고 거기에는 現在도 보살이 계시니 이름은 文殊師利이다. 一萬의 보살 권속을 위하여 항상 설법하신다. (東北方 有菩薩住處 名清涼山 過去諸菩薩 常於中住 彼現有菩薩 名文殊師利 有一萬菩薩眷屬 常爲說法)⁸⁾

이라고 하는 경문과 신역 『華嚴經』 45 「諸菩薩住處品」의,

東北方에 處所가 있으니 이름이 清涼山이다. 옛적부터 모든菩薩 大衆이 그 가운데 止住하셨다. 現在에도 보살이 계시니 이름이 文殊舍利이다. 그 眷屬인 모든菩薩 大衆

대산의 化寺(보통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인연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는 절)에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친견하고 갖가지 신비 체험을 하였음이 『송고승전』 27의 범조전에 실려 있으며, 無着이 化寺에서 문수를 친견하였다는 것도 이 시대의 일이다. 唐代의 오대산 불교에 대해서는 井上以智의 「五臺山史の一節」과 「唐時代における五臺山の佛敎」(『歴史と地理』 卷18~24)와 塚本善隆의 『唐中期の淨土敎』(昭和 50年 法藏館) pp.45~62 참조

8) 大正藏9. 590 上.

一萬人과 함께 항상 그 가운데 계시면서 法을 演說하신다. (東北方有處 名清涼山 從昔已來諸菩薩衆 於中止住 現有菩薩 名文殊師利 與其眷屬 諸菩薩衆 一萬人俱 常在其中 而演說法)⁹⁾

이라는 經文을 말한다.

그렇다면 澄觀의 五臺山 信仰이란 어떤 것일까? 그것은 이 新譯經을 해석하는 『華嚴經疏』를 보면 대략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이 新譯經을 해석하는 『華嚴經疏』 卷47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清涼山이라는 것은 곧 代州 雁門郡 五臺山이다.¹⁰⁾ 가운데에 현재 清涼寺가 있다. 언제나 굳은 얼음이 쌓여 있고 여름에도 눈발이 날릴 정도로 일찍이 炎暑가 없으므로 清涼이라고 한다. 五峯이 솟아 올라 정상에는 林木이 없으며 흙을 쌓아 놓은 臺와 같은 까닭으로 五臺라고 한다. 우리 ‘大聖¹¹⁾이 五智¹²⁾가 이미 圓滿하고 五眼¹³⁾이 이미 淸淨하여 五部¹⁴⁾의 眞秘를 總括하고 五陰¹⁵⁾의 眞源을 洞徹한 연고로 머리에 五佛의 冠을 이고(首戴五佛之冠)¹⁶⁾ 정수리에 五方의 髻¹⁷⁾를 나누어 五乘¹⁸⁾의 要를 運하여 五濁¹⁹⁾의

9) 大正藏10. 241 中.

- 10) 이 疏文을 해석하는 『연의초』 76은 ‘疏文을 六으로 나누니 一은 간략하게 經文을 해석하고, 二는 그 표시하는 바를 밝히고, 三은 그 方所를 定하고, 四는 그 靈聖을 드러내고, 五는 그 원유를 묻고, 六은 物이 修敬하기를 권함이다. 처음에 代州 五臺라고 말한 것은 곧 五臺縣과 繁峙兩縣의 경계이다.’라고 註釋하고 있다. 참고로 『華嚴經』에 나오는 清涼山을 中國의 五臺山이라고 말하는 것은 道宣의 『集神州三寶感通論』 卷下 (大正藏52. 424. 下)와 法藏의 『探玄記』 卷十五 (大正藏35. 391 上) 등이 있다.
- 11) 여기서부터는 ‘二의 그 표시하는 바를 나타냄’이니 金剛과 瑜伽에서 나온 것이 많다. 또 이치로 추리하여 해석한 것도 있다. ‘大聖’이란 文殊를 말한다. 그 이름을 가리키지 아니하고 바로 大聖이라고 말한 것은 지금 山中에서 稱念할 때 다만 大聖菩薩이라고 말하나니 곧 總稱을 들어서 별도로 吉祥을 가리킨 것이다.
- 12) ‘五智’라고 말한 것은 만약 『佛地經論』에 準한다면 五法이 大覺性を 攝하나니 四智菩提(大圓鏡智, 平等性智, 妙觀察智, 成所作智)와 一眞法界를 말한다. 『金剛頂』에 의지하면 곧 一眞法界를 淸淨法界智라고 이름한다. 그러므로 五智를 이룬다.
- 13) ‘五眼’은 肉眼, 天眼, 慧眼, 法眼, 佛眼을 말한다.
- 14) ‘五部’라는 것은 佛部, 金剛部, 寶部, 蓮華部, 羯磨部이다. 一切諸天의 眞言은 다 寶部に 속한다. 모든 귀신의 진언은 羯磨部이다.
- 15) ‘五陰’이란 것은 곧 나의 五陰이니 이 五臺 가운데 大覺이 있음이 곧 不動智佛이고 妙慧가 自在함이 곧 文殊임을 표시한 것이다.

災를 淸淨케 함을 表한 것이다.²⁰⁾ 그러나 다만 東北方²¹⁾이라고 말한 것은 그 말이 오히려 漫한 듯하다. 『寶藏陀羅尼經』²²⁾을 상고하여 보니 ‘내가 滅度한 뒤에 瞻部洲東北方

- 16) ‘首戴五佛之冠’이라고 말한 것은 諸大菩薩은 많이 이 冠을 썼으나 大聖은 戴冠을 논치 않는다.
- 17) ‘五方의 髻’라는 것은 中髻는 곧 中臺이니 毘盧遮那佛의 거처를 말한다. 이는 佛部의 主로서 法界 淸淨智이며 또한 佛眼이다. 그 동쪽의 一髻는 곧 東臺이니 阿閼佛의 거처이고 金剛部의 主로서 大圓鏡智이니 곧 慧眼이다. 남쪽의 一髻는 곧 南臺이니 寶生如來의 居處이다. 이는 寶部의 主로서 平等性智이니 곧 天眼이다. 서쪽의 一髻는 곧 西臺이니 阿彌陀佛이 居하는 바이다. 이 蓮華部의 主이니 곧 妙觀察智이며 法眼이다. 북쪽의 一髻는 곧 北臺이니 不空成就如來가 거하는 바이다. 이 羯磨部의 主이니 成所作智이며 肉眼이다.
- 18) 五乘에 배합하면 中은 곧 佛乘이고 東은 菩薩乘이며 南은 緣覺乘이고 西는 聲聞乘이며 北은 人天乘이다.
- 19) 五濁은 다만 다섯 가지가 같지 아니함을 취하였을 뿐이고 반드시 차례와 같은 것은 아니다.
- 20) 만약 五陰을 五臺에 배당하면 中은 識陰이고 東은 行陰이고 南은 想陰이고 西는 受陰이고 北은 色陰이니 차례가 이러한 까닭은 識이 主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五如來가 다 種子가 있어서 하나하나[—]의 觀行이 各各 같지 아니하니 密敎를 배우는 사람이 마야흐로 그 요점을 알 것이다. 이상의 주석은 대부분 『연의초』의 주석임
- 21) 여기부터 ‘第三에 그 方所를 정함’이니 『화엄경』이 國名을 가리키지 아니하고 다만 東北이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다른 經을 인용하여 方所를 정하였다.
- 22) 演義鈔』 76에 의하면 『寶藏陀羅尼經』은 『八字陀羅尼經』이라고도 하는데 文殊菩薩의 德을 널리 설하고 있다. 疏에서 인용한 부분의 앞에 “金剛密迹主菩薩이 如來에게 묻기를 文殊師利菩薩이 어느 곳 方面에 住하며 다시 어떤 方面에서 능히 이익을 행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고 如來가 답하시길 “내가 멸도한 뒤” 이하는 疏文에서 인용한 것과 같다. 또 아래의 偈頌이 있으니 그기에 말하길 “文殊大菩薩이 大悲願을 버리지 않으시고 몸을 변하여 童眞이 되어서 혹은 갖을 쓰기도 하고 혹은 몸을 드러내며 혹은 小兒의 무리에 처하여 邑과 聚落에 遊戲하며 혹은 빈궁한 사람이 되어서 쇠잔한 얼굴에 늙은 모습을 지으며 또한 춥고 배고픈 고통을 나타내어 저자 거리를 순행하면서 옷과 財寶를 구걸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보시를 발하여 일체의 願을 만족하여 신심을 발하게 하며, 신심을 이미 발하였으면 위하여 六度法을 설하고 일만 보살을 거느리고 五頂山에 거하여 億衆 光明을 놓으신다. 人天이 다 보고서 罪垢가 다 消滅한다. 혹은 聞持法因 一切多羅尼秘密 深藏門을 얻어서 수행하여 實法을 증득하고 구경에 佛果願을 이루어 空三昧門을 갖추고 泥洹路를 익히니 文殊의 大願力은 부처와 같은 경계이다. (文殊大菩薩 不捨大悲願 變身爲童眞 或冠或露體 或處小兒叢 遊戲邑聚落 或作貧窮人 衰形爲老狀 亦現饑寒苦 巡行坊市

에 나라가 있으니 이름이 大振那이다. 나라의 중간에 山이 있으니 號를 五頂이라고 한다. 文殊舍利童子가 遊行居住하면서 모든 菩薩衆을 위해서 거처서 說法하신다.’ 및 ‘無量無數의 藥叉, 羅刹, 緊那羅, 摩睺羅伽 人非人 등이 함께 圍遶하여 供養하고 恭敬하나라.’라고 하시니 이 말씀이 상세히 조사한 것이다. 그 山의 靈迹은 모든 傳記에 갖추어 (기술한 대로이다).²³⁾

이처럼 五臺山에 대한 종래의 설명을 引用한 다음에, 자신은 이 경전을 보다가 이 문장에 이를 때마다 책을 덮고 長歎息을 하였으며, 드디어 萬里 길을 멀다고 생각하지 않고 목숨을 맡겨 聖境에 嚮託한 지 십 년이나 되었다고 하면서, 자기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본 드러난 靈感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3. 聖靈이 머문 곳

聖地로서의 五臺山 특히 여름의 景致에 대해서 『華嚴經疏』 卷47은

여름의 景致는 勝事가 더욱 많아 歷歷한 龍宮의 밤에는 千個의 달[月]이 열리고 纖纖한 細草의 아침에는 百華가 사이(를 두고 만발)한다 (朝間百華). 혹은 萬聖이 허공에 나 열하고 혹은 五雲이 산봉우리[岫]에 엉기어 圓光이 山翠에 비치고 瑞鳥가 烟霄²⁴⁾에 날아 오른다. 오직 大聖의 이름만 들을 뿐이고 다시 인간의 생각이 없다. 聖境에 드는 자가 발뒤꿈치를 접하고 凡心을 고치는 자가 어깨를 부딪치는구나.²⁵⁾ 서로 보고는 서로서

塵 求乞衣財寶 令人發一施 與滿一切願 使令發信心 信心既發已 爲說六度法 令萬諸菩薩 居於五頂山 放億衆光明 人天咸悉睹 罪垢皆泅滅 或得聞持法 一切多羅尼 秘密深藏門 修行證實法 究竟佛果願 具空三昧門 習盡泥洹路 文殊大願力 與佛同境界) 아래에 다시 널리 그 德을 稱歎하였으나 번거롭게 서술하지 않나니 마땅히 經을 찾아보라(下更廣讚其德不能繁敘 要當尋經).” 라고 길게 서술하고 있지만 『寶藏陀羅尼經』 혹은 『八字陀羅尼經』은 현존하지는 않는 듯하다.

23) 大正藏35. 859 下.

24) 안개 낀 하늘. 張隨「雲從龍賦」에 ‘용은 구름이 없으면 烟霄를 건널 수 없고, 구름은 용이 없으면 비를 내릴 수 없다(龍無雲不可以涉烟霄 雲無龍不可以降時雨).’라고 하였다.

25) 原文은 ‘入聖境者接武 革凡心者架肩’이라고 하였다. 接武란 옛날 堂上을 걷는 법으로서 빨리 걷지 않게 하기 위해서 뒷발이 앞발의 자취의 반을 밟듯이 걷는 법을 말하고 架肩

로 非凡을 말하고 눈에 부딪치는 것은 다 佛事이다. 그 山勢와 寺宇는 말로서 다하기 어렵다. (大正藏35. 859 下)

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것은 그가 『演義鈔』에서 「第四 顯其聖靈」이라고 과목의 이름을 부친 것처럼 자신이 보고들은 경치를 서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종교적인 신앙에 의하여 그렇게 느끼고 있다고 보아야 좋을 것이다. 다음은 五臺山の 山勢와 寺宇에 대해서 『演義鈔』 76에는 이렇게 적고 있다.

그 山勢 寺宇의 아래는 간략히 佳境을 가리킴이니 그 산은 長安 東北 一千六百里에 있으니 代州의 東南 百餘里 거리이다. 數州 칠백리를 가득 차게 하니[磅礴] 왼쪽으로는 恒岳에 이웃하여 千峰이 秀出하고, 오른쪽으로는 孟津에 接하여 一帶를 長流하며 北으로 絶塞에 臨하여 萬里의 煙塵을 막고, 南으로는 汾陽을 擁하여 大國의 良이 되고, 등[背]에는 日月을 廻泊하여 雲龍이 모였다 흠어졌다[蓄洩]하니, 비록 눈이 쌓여 여름을 얼어붙게 하여도 名花는 萬品이고, 찬바람이 勁烈하여도 瑞草는 千般이다. 丹堊이 橫開하고 翠峯이 疊起하여 구름을 헤치고 안개를 없애면 때때로 物外의 봉우리를 만나며 翎鬚을 붙들고 위태로운 땅을 밟으면[捫蘿] 매양 非常한 경계에 이르게 된다. 白雲이 뭉개 뭉개 일어나면[凝布] 만리의 澄江을 뺏고 아침 해[杲日]가 솟으면 三尺의 大海²⁶⁾를 보게 되니 五峯은 喃喃이 갖추어 말하기 어렵다. '寺宇'라고 말한 것은 北齊의 崇敬으로 伽藍을 세운 옛터[故壤]가 현재 二百餘 所가 있으며 當時에 樓託한 寺宇는 여덟이 있었다. 貞元 以來의 數는 벌써 열을 넘었다. 혹은 五峯이 抱出하고 혹은 雙嶺의 가운데가 열리고[中開] 혹은 바위 속[巖中]에서 翳翳으로 일어나며[疊起] 혹은 구름 밖에 솟아 있어 갖추어 말할 수 없다.²⁷⁾

이런 어개를 걸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聖人の 境界에 들고 凡心을 고치는 사람이 매우 많다는 뜻이다.

26) 三尺之大海라는 것은 자신의 느낌을 말한 것인 듯하다. 일본 京都 龍眼寺의 石庭은 특수한 공법을 사용하여 좁은 공간 안에서 大海를 상상하게끔 설계되어 있다고 한다. 五臺山의 어딘가에 자연이 그렇게 보이는 곳이 있는 듯 함.

27) 大正藏36. 601 上~中, 新纂大日本續藏經7. 179 下~180 上

4. 五臺山の 源由와 聖跡

다음에 五臺山の 源由와 聖跡에 대해서 『華嚴經疏』 47은

大師께서 자취를 西天에서 감추고 妙德이 빛[輝]을 東夏에 드날림[妙德揚輝於東夏]으로부터 비록 法身은 항상 있으나[長在] 鷄山은 부질없이 깊은 숲[荒榛]²⁸⁾에 가리어 應現함에 方所가 있다. 鷄嶺은 이름을 이 땅[茲土]에서 얻고 神僧은 靈境에 顯彰하다(神僧顯彰於靈境). (大正藏35, 859 下~860 上)

라고 감동적으로 서술하고 이것을 해석하는 『演義鈔』 76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自大師晦迹 아래는 그 源由를 캐고 꺾하여 聖跡을 밝힘이니 처음은 바로 本源을 서술하였다. 大集經 가운데 부처님이 장차 涅槃에 드시려 하실 때 모든 보살에게 위촉하여 大千[世界]을 나누어 호위하도록 하셨다. 이 땅[此土]은 毒龍의害가 많고 사람들이 대승을 좋아[愛樂]하므로 妙吉祥菩薩이 여기에 處하여 行化하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妙德揚輝於東夏’라고 하셨다. 文殊般泥洹經에 이르시기를 만약 다만 이름만 들은 사람은 十二億劫 生死의 罪를 除하고, 만약 예배한 사람은 항상 佛家에 태어나고, 만약 이름[名字]을 부르[稱]면 一日이나 七日에 문수가 반드시 강림할 것이다. 만약 宿業의 障礙가 있더라도 꿈속에서 뵈옵거나 形像을 뵈오면 이 사람은 聖果의 位를 밝히[階] 應化가 廣大할 것이다. 그러므로 ‘揚輝’라고 말한다. 다음은 對로써 上의 兩句를 이름이니 처음은 위의 ‘大師晦迹’을 이루고 兼하여 妨難을 통함이니, 이를 테면 어떤 이가 묻기를 ‘항상 靈鷲山과 나머지 모든 住處에 산다(常在靈鷲山 及餘諸住處).’²⁹⁾고 하셨거늘 어찌하여 ‘자취를 숨겼다(晦迹)고 말하는가’(라고 반론을 제기하므로) 그러므로 이제 답하여 말하기를 二聖의 근본은 근본마다 다 湛然하고 二聖의 자취는 자취마다 隱顯이 있다. 이제 靈鷲山은 다 荒榛에 가리운[翳] 바이고 鷄山은 곧 雞足이니 또한 鷄嶺의 所管이다. ‘應現’의 아래는 위의 ‘揚輝於東夏’를 이룬다. 산이 신령스러운 솔개[靈鷲]와 같은 연고로 鷄嶺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神僧顯彰於靈境’ 등은 感通傳에 이르길 宇文의 後周時에 文殊가 化現하여 梵僧이 되어 此土에 來遊하여 이르길 迦葉佛의 說法處에 禮拜하고 아을

28) 荒榛은 아주 험한 수풀. 깊은 숲을 말함이니 孫綽의 遊天台山賦에 ‘荒榛의 蒙籠함을 헤치고 가파른 언덕[峭壘]의 崢嶸에 오르다.’라고 한 注에 荒榛은 깊은 숲[深林]이라고 하였다.

29) 『妙法蓮華經』 卷五 「如來壽量品」 第十六의 自我偈(大正藏9, 43 下)에 나오는 말임

러 文殊師利가 거주하시는 곳 淸涼山이라고 이름하는 곳에 가고자 하였다. 唐初에 長安의 師子國僧 九十九夏 三果의 사람이 이 聖跡을 듣고 맨발로 여기에 와서 淸涼山에 예배하였으니 모두 ‘神僧顯彰’이다.

부처님이 涅槃에 임하여 文殊菩薩에게 淸涼山에서 중생을 교화하도록 咐囑하셨고, 이 산이 印度에까지 잘 알려져 인도의 聖者들이 代代로 예배하러 오는 산이라고 注記하고 있다.

5. 皇室의 歸依와 外國僧의 參拜

『華嚴經疏』 47에서는 歷代 皇室의 귀의와 외국인의 참배에 대하여

宣公은 위로 諸天에게 묻고(宣公上稟諸天)하고, 漢明은 崇基를 처음으로 열고(漢明肇啓於崇基) 魏帝는 至化를 믿고(魏帝中孚於至化), 北齊는 數州로서 傾奉(北齊數州以傾奉)하고, 唐의 九帝가 廻光(有唐九帝之廻光)하고, 五天이 목숨을 마쳐 奔風하며(五天殉命以奔風), 八表가 몸을 죽이고 다투어 依託하니, 神州에 살면서 一生에 이르지 못하는 자는 또한 어찌 舍衛三億의 무리와 다르겠는가? 원하옵건대 모두 다 修敬할진저.

라고 역대 황실의 崇奉을 열거하고 위의 疏文에 대해서 『演義鈔』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차례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구절인 ‘宣公上稟於諸天’이라는 것에 대해서 『演義鈔』 76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南山感通傳에 이르길, 때에 天人이 있으니 姓은 陸이고 이름은 玄暢이다. 참배하러 와서 말하길 弟子는 周의 穆王 때에 하늘에 태어났다. 내가 묻기를 宇內에서 의심되는 것은 옛날부터 서로 전하길 ‘문수가 淸涼山에 있으면서 五百 仙人을 거느리고 說法한다.’고 하고 經中에 설하길 ‘문수가 오래 娑婆世界에 거주한다.’고 하니 娑婆는 大千의 總號이다.

어찌하여 편벽되게 此方에만 있겠는가? 天人이 답하여 말하길 文殊는 諸佛의 先師이다. 인연 따라 利益을 보이며 應變이 같지 아니하다. 大士의 大功은 凡人의 경계가 아니니 수고롭게 評薄할 것이 아니다. 다만 많이 淸涼 五臺의 가운데에 있어서 往往에 그것을 보는 사람이 있으니 믿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上稟於諸天’이라고 하였다. 또 이

제 山南에 淸涼府 五臺縣이 있고 산 북에 五臺府가 있어서 또한 萬代의 龜鏡이 되는 연고로 미혹할 것이 없다.

疏에서 ‘漢明肇啓於崇基 魏帝中孚於至化’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演義鈔』 76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感通傳을 살펴보니 이르길 지금의 五臺山 東南 三十里에 현재 大孚 靈鷲寺가 있는데 兩堂의 舊跡은 지금도 남아 있다(猶存). 남쪽에 花園이 있는데 二頃許이다. 四時에 彩色을 發하되 사람이 그것을 궁구할 수 없다. 혹은 ‘漢의 明帝가 세운 것이다.’라고 하고 혹은 ‘魏의 文帝가 지은 바이다’라고 하여 서로 말이 같지 아니하니 어떠합니까? 天이 답하길 함께 二帝가 지은 것이다. 周의 穆王 때에 이미 佛法이 있었다. 이 산의 靈異는 문수가居하는 것이다. 周 穆王이 거기에 절을 지어 供養하고 阿育王에 미쳐서 또 탑을 세웠다. 漢 明帝의 처음에 摩騰이 天眼으로 탑이 있음을 보고 帝王에게 청하여 절을 세우고 山形이 신령스러운 술개[靈鷲]와 닮은 연고로 號하여 大孚 靈鷲寺라고 하였다. ‘大孚’란 弘信함이다. 帝가 佛理를 믿어 절을 세워 사람에게 勸하였다.³⁰⁾ 花園이 지금 절 앞에 있으므로 훗날의 군주가 고쳐서 大花園寺라고 하였다. 則天大聖皇后가 于闐三藏과 더불어 『華嚴經』을 번역함에 이르러 보살이 淸涼山에 거주한다는 것을 보고 고쳐서 大華嚴寺라고 하였다. 五頂을 끌어 안아 가운데 山心을 열어 離坎乾坤이 그 中理를 얻어 千巖이 우뚝 솟아 빼어났으며, 萬壑이 森沈하여 鷲嶺의 仙峯을 뽑고 華嚴의 一葉을 이루었으니 진실로 衆靈이 翔集하는 중앙청[沖府]이고 賢聖을 뵈는[參觀] 玄都이다. 앞에서 ‘鷲嶺得名於茲土’라고 한 까닭이다.

疏의 ‘北齊數州以傾俸’이라는 것에 대하여 『演義鈔』 76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北齊의 高帝가 大教를 篤崇하여 二百餘의 절을 이 山에 設置하고, 八州의 租稅를 나누어[割] 山中 大衆의 衣藥의 資로 供給하였다. 지금도 오히려 五道場莊이 있다.

疏의 ‘有唐九帝之廻光’이라는 구절에 대한 『演義鈔』 76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우리 大唐으로부터 지금의 황제에 이르기까지 서로 이어서 아홉 황제[九葉]가 聖鑑을

30) 周의 穆王 때에 이미 불법이 있었다거나 阿育王이 탑을 세우고 摩騰이 帝王에게 권하여 五臺山에 절을 짓게 하였다는 것은 전설에 속하지만 澄觀 당시에는 歷史的인 사실로 받아 들여진 듯하다.

돌아보지 아니함이 없었다. ‘今聖’이라는 것은 德宗帝에 해당한다. 靈山을 傾仰하여 어차 [御筭³¹⁾] 天衣가 매양 五頂 가운데 빛나고 香藥으로 하여금 歲時에 끊어지지 않게 하였다. 金闕이 구름 가[雲端]에 우뚝 솟음[峯境]은 오히려 聖化를 의심케 하고 竹林³²⁾이 바위 끝[巖畔]에 무성하게 솟음[森聳]은 완연히 하늘에서 온 듯하다. 그러므로 모든 임금 [百辟]이 귀의하여 받들고[歸崇] 九州가 공물을 바쳐 구름에 실려오고 안개에 합하여 오는 듯 땅에 두루하고 山에 가득하다. 우리 부처님과 祖師가 萬行을 曠劫에 쌓고 慈雲이 彌漫하여 널리 덮으며 智海가 黯湛하여 包納하고 法界를 올라리[廓]로 하여 疆域을 삼고 중생이 다함을 願門으로 삼지 않았으면 어찌 능히 應感이 이와 같겠는가? 宿善이 어떻게 무르익어 이 遺跡을 만났던가. 感情이 약동함을 마지못하여 詠言으로 형용하노라.

이처럼 중국의 歷代 황제가 五臺山의 수행자를 지원한 사실을 열거하였다.

6. 五臺山 參拜를 勸함

인도의 고승이 五臺山을 참배한 사실에 대해서 『演義鈔』 卷77은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疏에서 ‘五天殉命以奔風’이라고 말한 것은 第六에 중생이 닦고 공경하기를 권한 것(勸物修敬)이니 처음 두 구절은 例를 인용하여 닦기를 권함이다. 五天竺國은 대충 二十萬里라고 말하지만 누가 그 實數를 알겠는가? 만약 陸地로 간다면 길이 數百國을 경유하여 雲山이 幾萬重이나 된다. 혹은 동아줄을 잡고 허공을 의지하며(捫索憑虛), 혹은 사다리를 날려 뿔대로 돌며(飛梯架迴), 혹은 바람에(날려)가고 눈 위에 누우며, 혹은 나무를

31) 御筭--천자가 내려보내는 글. 天衣--천자가 내리는 가사

32) 여기서 말하는 金闕은 金闕寺를 말하고 竹林은 竹林寺를 말한다. 죽림사는 澄觀과 같은 시대를 산 스님으로 五會念佛의 法을 선포한 法照의 창건으로 貞元 以來 오대산의 十寺 중에서도 제일 큰 절이다. 그러나 이 절의 정확한 설립 연대는 확실하지 않으며 竹林寺는 十寺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설이 있다. 塚本善隆의 앞의 책 pp.147~154 참조. 拙見으로는 『演義鈔』의 성립 이전에 있었던 절이 확실하므로 貞元 初期에 설립된 절인 듯하다. 참고로 『宋高僧傳』 卷 第27의 唐五臺山智顛傳에 ‘時德不孤 有法照 無着 澄觀之出世也 當觀師製華嚴經疏 海衆雲集 請頌爲講主 日供千僧’이라는 것으로 보아 범조와 澄觀이 『華嚴經疏』 저작 당시에 함께 오대산에 살았음이 분명하다.

먹고 소나무에 깃들이며, 혹은 惡獸가 무리를 짓고, 혹은 도적이 서로 이어지기도 한다. 만약에 水路로 행하면 큰 파도에 (기댈) 언덕이 없이(洪濤無岸), 구름 섬이 잠김으로 돌아오고(雲島潛回), 도깨비(精怪)가 바람을 흔들고, 고래[鯨鯢]가 물결을 쳐서 日月이 파도 밑에서 出沒하고 魂魄이 夢中에 회오리바람처럼 날리도다(飄颻). 비록 파도가 쉬고 바람이 멈추어도 다만 물이 天際에 잠김을 보니[涵] 배가 가고 노(棹)를 들어도 오히려 생각을 쉬어 生涯를 짓고자 한다. 이러한 危難을(무릅쓰고) 三藏名僧이 줄을 이어 오니 다 大乘을 인연하여 목숨을 맡기고 생을 가볍게 여김이다. 그러므로 '五天殉命以奔風'이라고 하였다.

疏에서 '八表亡軀而競託'이라고 한 것은 아래와 같은 뜻이다.

東에서 西에서 南에서 北에서부터 하늘 끝(天徼)³³⁾ 月窟³⁴⁾, 海潮, 日出을耳目이 있는 사람은 괴로움[艱辛]을 꺼려하지 아니하고 멀더라도 반드시 이르렀음을 말한다.

疏에서 '其有居神州' 아래는

바로 권유함이니 곧 반대로 가지 않는 損失을 들어서 가는 사람의 이득을 드러내었다. 葱嶺의 동쪽 地方 數千里를 赤縣神州라고 한다. 곧 唐의 所有인 中華의 나라이다. 淸涼의 地境에 가기가 途程이 멀지 않다. 坦然한 通衢에는 車馬가 길에 넘치고 方을 따라 化를 觀함에 家常을 잃지 않는다. 가면 반드시 感徵이 있는데 어찌하여 가지 않겠는가? 이는 가지 아니함은 곧(부처님 당시에 舍衛國에 살면서 부처님을 뵈지 못한) 三億의 무리임을 알겠도다. 그러므로 도끼를 잡고 띠를 나누는(秉鉞分茅) 方面의 重함을 傾仰치 아니 함이 없다. 西域의 모든 王이 五天에 태어나서 東夏에 태어나지 못함을 한탄 하니 어찌 오직 멀리서 大聖을 禮할 뿐이겠는가? 매양 此君을 仰羨하나라. 그러므로 西天에 노닐 적인 있는 사람은 먼저 五臺山에 산 적이 있는지를 묻고 만약 산 적이 없다고 말하면 버리고 돌아보지 않았다. 이제 이 나라의 중생이 宿因의 多幸으로 中華에 태어날 수 있었으니 諸佛祖師가 尊敬을 풀지(解) 못할 새 그러므로 이에 수행하길 권한다. '三億의 무리'란 것은 智論 第十一에 이르길 '부처의 出世는 만나기 어려우니 優曇華가 때에 한번 있는 것'과 같다고 했다. 이와 같은 罪人들은 三惡道를 輪轉하다가 혹은 人天 중에 있으나 부처가 출세할 때 天人이 보지 못하니 마치 舍衛城 中에 九億가가 있었

33) 徼는 大日本續藏經本에는 '行'(新纂大日本續藏經7. p.181 上)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靈覺寺版『大方廣佛華嚴經疏鈔』卷四十五之三에는 '徼'로 기록되어 있음.

34) 月窟이란 달 속의 바위굴, 혹은 달이 뜨는 곳을 말함.

는데 三億家は 눈으로 부처를 보고, 三億家は 귀로 부처가 있음을 듣고도 눈으로 보지 못했고, 三億家は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 부처가 舍衛國에 二十五年이나 계셨으나 이 중생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 하물며 멀리 있는 사람이겠는가? 그러므로 이제 중화의 사람이 일찍이 五臺山에 도달한 사람은 곧 또한 듣고 또한 본 것이고, 淸涼을 듣고도 도달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은 곧 이름을 듣고 보지 못한 것과 같다. 다만 五臺에 가까이 있으면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사람이 있으니 하물며 멀리 있는 사람이겠는가. 그러므로 修敬을 권하노라. 만약 문수를 뵈는다면 功德이 광대함은 앞에서 간략히 서술한 바와 같고 넓게는 經文에 있다.

라고 하여 五臺山에 대한 설명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자신의 五臺山 信仰을 피력하고 있다. 이것은 法藏이 『探玄記』 卷十五에서 ‘淸涼山이란 代州의 五臺山이 이것이다. 거기에 현재 古淸涼寺가 있다. 겨울과 여름에 눈이 쌓인 까닭으로 ‘淸涼山’이라고 이름하였다. 이 산과 文殊의 靈應 등은 傳記 三卷이 있다.’라고 간단하게 기록한 것과 李通玄의 『華嚴經論』에서 별다른 言及이 없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7. 唐末 五代의 五臺山 信仰

이렇게 澄觀에 의하여 거의 집대성된 五臺山 신앙은 唐末 五代의 불교가 神異의으로 전개되면서 때마침 海上 貿易이 발달함에 따라서 海難을 피하려는 商人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龍神信仰을 불교가 포섭함으로써 龍神의 지도자로서 五臺山의 文殊信仰이 깊이 침투하였다. 한 예를 들면 超化大師 李匡嗣는 吳越國에서 응송한 대접을 받고 海路를 거쳐 北으로 돌아갈 때의 모습을 『廣淸涼傳』 卷下는 이렇게 쓰고 있다.

폭풍이 사방에서 일어나 성난 파도가 덮쳐 순식간에 침몰할 것 같았다. 배 안의 사람들은 크게 놀라(어찌할 바를 몰랐다.) 大師께서 옷을 가다듬고 향을 사르고 五臺山을 바라보며 멀리서 文殊大聖에게 예배하고 가만히 加護가 있기를 빌었다. 조금 지나자 文殊師利가 海上에 나와 半身을 드러냄을 보았다. 맹렬한 바람과 놀란 파도는 단박에 편안한 휴식에 들었다. 드디어 滄州에 도달하였다.(大正藏51. 1122 中)

이것을 참조하면서 慈藏 스님이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고 동해를 건너는 이야기를 음미하면 좀더 발달한 신앙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8. 大顯通寺

大顯通寺는 五臺山 台懷鎮의 북측에 있는 五臺山 五大禪刹의 하나로서 비단 그 規模가 클 뿐만 아니라 最古의 역사를 가진 사찰로 유명하다. ‘大顯通寺’라는 이름의 유래는 明의 太祖인 朱元璋이 賜額한 이름이다. 즉 명나라 때에 이 절의 스님들이 각지로 다니면서 시주를 받아서 각각 그 지방에서 五百 羅漢을 鑄造하였다. 羅漢像이 完了되었을 때에는 各地에 흩어져 있어서 五臺山으로 운반할 힘이 없었다. 드디어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를 올리고 빌기를 時間과 地點을 약정하여 羅漢이 스스로 往臨하시길 청하였다. 그랬더니 약정한 시간과 장소에 정말 영험을 나타내어 오셨다는 것이다. 明 太祖는 이 이야기를 듣고 寺額을 ‘大顯通寺’라고 下賜하여 나한이 크게 신통을 나타내었음을 顯彰하였다고 한다.

이 설화의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으나 明代 이후 이 사찰이 황실의 총애를 입은 것은 틀림없다. 당나라 때는 大華嚴寺로 불렸으며 澄觀은 이 절에서 德宗의 興元 元年(784)부터 貞元 二年(787)에 걸쳐서 80권 『華嚴經』에 대한 해석서인 『華嚴經疏』 60卷을 저술하여 더 유명해졌다.³⁵⁾

鎌田茂雄 博士는 山西省 五臺山 台懷鎮 정문 앞의 마을에서 紀念品 商街들이 즐비하여 있는 楊林街를 通過하여 顯通寺의 鐘樓를 지나서 顯通寺 山門의 양쪽 기둥에 ‘冥眞體於萬化之域’과 ‘顯德相於重玄之門’이라고 걸려있는 柱聯을 보고, 華嚴宗 第四祖 清涼大師 澄觀(738~839)의 『華嚴經疏』의 序文의 一節을 생각하고, 이곳이야말로 澄觀과 깊은 인연이 있는 절(大華嚴寺)임을 알았다고 기술하고 있다.³⁶⁾ 이곳이 澄觀이 『華嚴經疏』를 지은 곳을 澄觀의 『華嚴經疏鈔玄談』을 해석한 宋 觀復의 『華嚴演義鈔會解記』 卷一³⁷⁾과 元 普瑞의 『華嚴懸談會玄記』 卷一³⁸⁾은 밝히고 이 大華嚴寺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것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大華嚴寺’는 옛날의 大孚 靈鷲寺이다. 『感通傳』을 살펴보니 南山이 天神에게 묻기를 “지금 五臺山의 東南 三十里에 현재 大孚 靈鷲寺의 兩堂이 있어서 옛 자취가 오히려 남

35) 『宋高僧傳』 卷五의 澄觀傳은 ‘起興元元年正月 貞元三年十二月畢功 成二十軸 (大正藏50. 737 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華嚴經疏』는 성립 당시는 二十卷이었지만 현재 大正藏收錄本은 60권이다.

36) 鎌田茂雄 『華嚴經物語』 (平成三年 大法輪閣) p.200.

37) 『金澤文庫研究紀要』 第五號 (1968年 神奈川縣縣立 金澤文庫) p.3~4

38) 新纂大日本續藏經 第八卷 92 下~93 上.

아 있으며 남쪽에는 꽃밭[花園]이 二頃 정도로서 四時에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참구한 사람이 없어서 漢의 明帝(57~75)가 세웠다고 말하기도 하고 魏의 文帝(220~226)가 지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二說이 같지 아니하니 어떤 것이 옳습니까?” 天이 답하길 “다 옳으니 二帝가 지은 것이다.” 하였다. 周穆王(第五代王) 때에 이미 佛法이 있었다. 이 산이 신령스러워서[靈異] 文殊가居하므로 穆王이 절을 지어 공양하고 阿育王 때에 미쳐서 탑을 설치하였다. 漢 明帝의 처음에 摩騰이 天眼으로 탑이 있는 것을 보고 皇帝에게 절 세우기를 청하고 산의 형세가 靈鷲와 같으므로 大孚 靈鷲寺라고 불렀다. ‘孚’는 널리 믿는 것이니 황제가 佛理를 믿어서 사람에게 권하였기 때문이다. 花園이 절 앞에 있었으므로 뒷날의 君主가 大花園寺라고 고쳐서 불렀다. 『珠林集』에 말하길 ‘이른 봄으로부터 늦은 가을까지 기이한 꽃이 사이사이로 피어서 사람의 눈을 부시게 한다. 四邊의 樹園에 사랑스럽고 기이한 꽃들은 人間에는 없는 것으로 옮겨 심어도 살지 못하고 내지는 나무를 花園 밖으로 옮기더라도 또한 살지 못한다. 則天이 于闐과 함께 『華嚴經』을 번역하다가 보살이 淸涼山에 거주함을 보고 ‘大華嚴寺’라고 고쳤다.

이것은 위에서 말한 『華嚴經疏』 卷47의 ‘漢明肇啓於崇基 魏帝中孚於至化’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演義鈔』 76에서 해석한 부분과도 일치한다. 그러나 이것은 설화이므로 내용 그대로 믿을 수는 없으나 적어도 魏의 文帝(220~226) 때의 기록은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즉 지금의 顯通寺는 옛날에는 大孚 靈鷲寺 혹은 大花園寺라고 불렀으나 大周則天皇帝 때에 新譯 80권 『華嚴經』이 번역되는 것을 기념하여 大華嚴寺로 改名하게 되었고, 澄觀은 여기에서 『華嚴經疏』를 짓고 이어서 이것을 다시 해석하는 『演義鈔』를 짓게 되었던 것이다.³⁹⁾

9. 맺는 말

이상 우리는 澄觀의 지시를 따라서 新譯을 비롯해서 舊譯의 『華嚴經』 및 『寶藏陀羅尼經』 등의 經典上에 나타난 五臺山 信仰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즉 澄觀이 본 五臺山은 성스러운 영기[聖靈]가 깃든 곳이며 문수보살이 상주하시는 道場이다. 이곳은 역대의 황제가 숭앙한 곳이며, 외국 사문들이 끊임없이 참배하러 오는 名山으로서, 인도 스님들도 천

39) 상세하게는 拙論, 1998年, 「澄觀의 五臺山 入山과 『華嚴經疏鈔』의 著作」 본고 『論文集』 제7집, p.47~64 참조, 중앙승가대학교.

축에 태어나고 中華에 태어나지 못함을 한탄할 정도라고 말하면서, 이 山에 참배하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淸涼 澄觀의 주장을 『華嚴經疏』 卷47 및 그것을 해석한 『演義鈔』 卷76 과 同卷77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한편 澄觀은 司徒인 嚴綬⁴⁰⁾, 司空인 鄭元⁴¹⁾, 汝州刺史인 陸長源⁴²⁾ 등의 요청에 의하여 毘盧遮那佛과 文殊菩薩과 普賢菩薩의 三聖이 圓融하다는 『三聖圓融觀』 一卷을 지어서 文殊菩薩의 道場인 五臺山과 함께 普賢菩薩의 道場인 峨嵋山도 顯彰하게 하였다.

澄觀의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을 얻어 이후의 五臺山信仰 및 峨嵋山信仰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이후에 조성된 石窟寺院 같은 곳에서 釋迦(혹은 毘盧遮那佛), 文殊 普賢의 三聖像을 處處에서 볼 수 있게 된다.

-
- 40) 嚴綬는 貞元 16년에 行軍司馬가 되고 貞元 17年(801)에 河東節度使가 되었으며 다시 少傅가 되었다. 그의 전기는 『舊唐書』 卷146 및 『新唐書』 129에 수록되었다
- 41) 鄭元(?~809)은 貞元中(785~804)에 河東節度使, 尙書左丞, 元和 二年(807)에 戶部侍郎兼 御史大夫를 지낸 果斷性있는 武士로서 그의 전기는 『舊唐書』 卷146에 수록되어 있다
- 42) 陸長源에 대해서는 『舊唐書』 卷145 및 『新唐書』 卷151에 傳記가 있다. 澄觀은 이 사람을 위하여 『三聖圓融觀』을 짓고 陸長源은 澄觀의 『華嚴經疏』에 대하여 序文을 지었다. 이 서문은 高橋秀榮 「陸長源が撰述した大方廣佛華嚴經疏序について」, 『金澤文庫研究』 21卷12號에 全文이 收錄되어 있다. 이 사람과 澄觀과의 관계에 대해서 상세하게는 졸론 「韓愈의『送僧澄觀』について」. (大正大學大學院研究論集, 第14號, 1990年 2月)가 있다.